

연중 제9주일

순정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 판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교구청
☎ 0041 · 0042 · 0043

기도서 360 번(A해)
제1독서: 신명 11, 18. 26-28
제2독서: 로마 3, 21-25a. 28
복음: 마태 7, 21-27

□강론



복음의 행동화

오현택 신부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교 200주년을 맞이했고 또 주님의 수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 문턱에 와 있습니다.

신앙의 초점인 하느님은 당신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당신 자녀로서 당신이 허락하신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녀들인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행동화를 요구하십니다.

성조 아브라함은 야훼 하느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외아들인 이사악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고 모세는 시나이산에서 40일간 엄재하시고 십계판을 받을 수가 있었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화(肉化)되시어 오셨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우리와의 일치를 위하여 전격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 실천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랑 실천은 바로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지난 주 복음에서 살인과 간음과 거짓맹세 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어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우리에게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의 비천한 수난을 받으셨으며 영광스런 부활로 모든 것을 뺏으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200년 전의 치명복자 선조들을 되돌아봅시다. 그분들은 복음에 대한 믿음 실천 때문에 가문도, 명예도, 재산도, 마지막엔 생명까지도 버렸습니다.

이는 바로 주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었고 신앙안에 후손인 우리에게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200년 전에 그분들은 세계적으로 바보였고 미친자들이며 죄인들이었으나 성인으로 추대된 오늘에는 영웅이요, 가장 행복한 승리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영원히 영광과 찬미를 받으실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후손인 우리들도 선조 치명복자들처럼 복음의 행동화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잡고 닦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은 물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즐거운 신앙인이 됩시다.

〈김계 전주교회 주임신부〉



내가 먼저
낮은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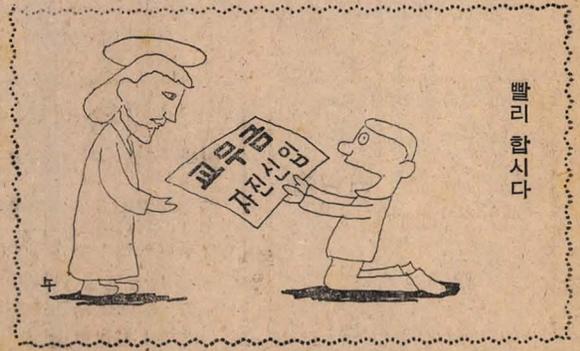
또다시 이마에 재를 받는 사순절이 시작된다. 그러나 금년에 맞는 사순절의 감회는 또 다르다. 달력이 찢어지며 구르는 역사의 흐름속에 교회력의 주기적인 반복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늘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전례력이 지니는 의미는 결코 연중행사의 반복일 수는 없다. 그런데다가 금년이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이라는데서 더욱 그러하다.

이 땅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연 우리 신앙 선조들은 조상 전례의 문화에 새로운 변혁을 가져왔다. 유희의 전통과 불교 신앙의 바탕에 일대 변혁을 가져 온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질서를 깨뜨리는 변혁에는 아픔이 따르기 마련이어서 피흘림의 순교가 있었다. 생명이 새롭게 탄생하는 과정에서의 씨앗의 썩음이다. 이러한 고통의 신비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한지 2백년이 된 오늘이기에, 이때에 맞는 사순절의 의미는 달라야 하는 것이다.

이 땅에 빛을 밝히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하느님 백성인 우리들의 새로운 탄생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깊게 되돌아 보는 내성(內省)이 앞서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크리스찬인 나는 누구이어야 하는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크리스찬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다짐해야 한다.

특히 교회안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가벼운 십자가나 찾고, 십자가보다는 영광만을 추구하지 않았는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 낮은데로 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 누구를 닮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낮은데로 내려가면 일치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순정이 산책



빨리 합시다

□교활 요한 바오로 2세의

1984년도 사순절 메시지(요약)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마태오 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읽고 또 들어 왔읍니다.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물질적, 도덕적, 정신적 빈곤의 희생자들, 즉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가난속에 버려져 착취당하는 사람들, 재난과 경제적 어려움에 희생이 된 모든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 가족들, 인간의 기본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과 더불어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정의를 목말라하며 인간 존엄성의 존중을 갈망하는 사람들, 공평하고도 보편적인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수많은 분쟁과 분별없는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위협을 받아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파괴가 아니라 건설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까지 망각하고 지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남아 도는것, 더 나아가 필요한 것까지도 이웃에게 내어주는 일은 우리 본성에서 항상 자유롭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눔과 정의와 평화에 대한 갈구를 우리 내부에서 복돋우며 끊임없이 이웃의 삶에 형제애의 눈길을 보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각각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때로 내야지 아까와 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고린토인들에게 하신 이 권고는 오늘날에도 온전히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성년에 맞이하는 이 사순절에 보다 깊이 회개하고, 더욱 진실하게 하느님과 화해하고 우리 이웃과 화해를 이룩합니다. 그러할 때 참회와 나눔과 단식의 정신이 진정한 행동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곧 가난한 이들의 인간적 발전을 지원하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구해 주며, 시민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그 책임을 정직하고 용기있게 수행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근간은 우리 이웃에 대한 주저없는 봉사입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제의 수요일에

□전례 해설

재(灰)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재의 수요일이라 한다. 이날 지난 해 성지주일 날 축성한 성지(聖枝)를 태워 재를 만들어 머리에 얹는 예식을 한다.

그 재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재는 성서상으로 보아 죄의 보속을 뜻한다. 재라는 것은 물건이 타고 남은 잔재의 상징으로 인간이 범한 죄의 잔재로 그 죄에 해당하는 보속을 뜻한다.

구약성서에 재는 죄를 보속하는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조각으로 몸을 긁었다.」(욥기 2장 8절) 욥이 하느님의 시련을 보고서 자신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 잿더미에 앉았고, 구약의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설교했을 때 「이 소문을 듣고 니느웨 임금도 용상에서 일어나 어의를 얹은 배옷으로 잘 아입고 잿더미에 앉아 단식하였다.」(요나 3장 6절)

마태오 복음에도 이런 말이 있다. 「뱀사이다야, 너도 화를 입으리라. 너희에게 배운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게 보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배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뿌리며 회개하였을 것이다.」(마태오 11장 21절)

이상으로 보아 재라는 것은 가장 보잘것 없는 것이고 그 보잘것 없는 재를 머리에 쓰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던 것이 전통사상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사순절 보속의 기간이 시작되는 수요일에 교회는 신자들의 머리에 재를 얹으면서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인생 무상을 깨우치고 죄에 대한 보속을 먼저해야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200주년 기념주일 호소문

3월 11일은 200주년 기념주일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는 200주년 기념사업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1984년까지 매년 복자 성월인 9월 첫 주일을 200주년 기념주일로 정하고 이날에는 특히 기념 정신을 드높이고 모든 교우들이 이 일에 다같이 참여하도록 일깨우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교황성하 방한이 5월 3일부터 7일까지 확정되었고 기념대회, 103위 시성식, 전국 사목회의 등 중요행사를 그 때에 실시하게 됨에 따라 200주년 기념주일의 날짜를 앞당겨 3월 11일을 기념주일로 지내게 된 것이다.

200주년 기념을 위해 계획된 모든 사업은 우리의 기도와 정성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200주년 기념주일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야 되겠다.

□신장개업 안내

새롭고 아늑한 분위기

샤 르 망 커피숍

한미 외국어학원 지하
구 맥다방

☎ 2579

은 바오로(윤창)

박 테레사(청자)

성심연와공업사

변색 벽돌·적벽돌(제조
판매)

공장전화: 황산 174번
분사: 이리시 창인동
전주사무실: ☎ 2-0385

이리시 창인동 1가 259

☎ ② 2994 · ③ 7979

대표: 차계철(베드로)

귀가 어두우신 분에게
보청기를 권합니다

동남 의료과학 상사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바오로서원 옆)

☎ 3-6900 · 72-6522

김 낙 균(요셉)

- 혼수(회갑) 옷감 | 도
- 특수 파티복 | 매
- 고급 침구류 * 상
- 각종 솜 일체
- 커먼지

서울주단

☎ ③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200주년 기념

사순절 대 강연회

우리는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200주년을 뜻깊게 보내기 위하여 여러가지 기념행사와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별히 교황성하 한국 방한과 103 위 순교복자들의 시성식은 우리 한국교회의 크나큰 영광이요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200주년을 기념하고 경축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교황성하를 모시고 시성식과 신앙대회를 하는 외적인 행사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200년의 교회사 속에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빛이 되고 있는지를 깊게 살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게 하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면 200주년을 무의미한 행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전주교구 200주년 정신운동 위원회에서는 사순절을 맞아 200주년 대 강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모두 오셔서 200주년의 의미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때 : 사순절 매주 토요일 저녁 7시30분 장소 : 전주 중앙성당

일시	주제	강사	강사 소개
3월 10일	한국 천주교회의 재조명	김진소 신부	호남교회사 연구소장
17일	시대적 집표와 우리의 과제	최기복 신부	인천교구 사목국장 역임, 현 동국대대학원유교학 전공
24일	오소서, 주 예수여	이병호 신부	광주 대진신학대학 교수
31일	200주년과 평신도상	문정원 신부	중앙성당 주임신부
4월 7일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	김승술 신부	서울 명상의 집 관장신부
14일	200주년의 의미와 과제	이완영 수녀	성가회 총장 수녀

□ 200주년 기념품 판매 개시

전주교구 20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에서는 200주년 기념 상품을 해의 기획으로부터 직접 조달하여 가톨릭 센터 내에 전시 및 판매장을 설치하여 각 본당 및 전 신자를 대상으로 판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당 단위로 구입하셔서 본당 사업으로 판매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전시 및 판매장 : 가톨릭 센터 3층 346호 때 : 매일 오후 2시~7시까지

□ 제 2기 가나강좌 개강

행복을 누리는 터전이자 세계 평화의 핵인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없이 절실합니다.

작년에 이어,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아름답고 사랑에 가득찬 가정 공동체를 준비시켜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제 2기 결혼강좌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3월 17일~4월 14일 (5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9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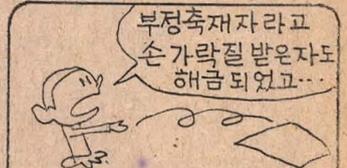
장소 : 가톨릭 센터 3층 대상 : 미혼 남녀 (기혼자도 좋음) 수강료 : 3,000원

접수 : 3월 16일까지 교육국으로

특전 : 본 강좌 이수자에게 수료증이 수여되고 혼인참고가 면제됨. (교구장 승인)

일시	강의 내용
3월 17일 (토)	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⑤ 혼인의 의미와 목적
24일 (토)	② 혼인의 윤리 ④ 가정의학
31일 (토)	③ 가정 공동체 ⑥ 부부생활
4월 7일 (토)	⑦ 복음의 생활화 ⑧ 생명의 신비 (영화)
14일 (토)	⑨ 빌립스에 의한 ⑩ 수료식 및 평가회

요심이 (552) 김병오



교사 초빙

1. 과목 : 교 련
2. 구비서류 : ① 자필이력서
② 생활기록부 사본
③ 고등학교, 대학교 성적증명서
3. 서류제출 마감 : 1984년 3월 7일
4. 제출처 : 전주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서무과

성심 여자 중·고등학교

학교법인 해성학원 이사장

* 정통하이패션

리하수®

전주 개점

전주시 중앙동(이시계점 앞)

☎ 2-5375

이영숙(마리아)

초상화

* 개인지도 * 주문제작

* 만곡선생의 특수 정밀 묘사 기법으로 누구나 쉽게 지도합니다

전주시 교사동 1가 167

☎ (72) 2757

박준용(요셉)

□ 마춤 · 대며 □

신부의 집

* 웨딩드레스 · 연주복 · 비디오촬영 · 폐백의상 · 신부부케 · 야외촬영

판봉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 6951

정인기(논지도)

* 마이크 엠시절 전문 VTR, 냉장고, 칼라 TV, 세탁기, 녹음기, 전자렌지

공장도 가격 판매 개시

금성팩토링 체인점

백운전자

백니노 · 이테레사

☎ 3-0231

우신호텔-시민약국 중간

제 1 지구 각 본당 소식 ①



☆ 7일은 재의 수요일이며 단식과 금육을 하는 날입니다

- 1. 제 3차 레지오 마리에 연수회 : 4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레지오 마리에 간부와 단원, 참가비-2천원
 - 2. 제9차 어린이들의 모후 소년 꾸리아 회의 : 4일 오후 2시, 장소-상광선당, 대상-소년 브레시디움 간부
 - 3. 사무장 연수회 : 5일 오전 10시, 장소-센터
 - 4. 사제 평의회 : 6일 오전 10시
 - 5. 공소회장 2차 연수회 : 8일 오후 2시~11일, 장소-센터
- 축! 영명** : 성 가시미로(4일)-오 헌택 신부님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점훈
보좌 신부 안철민
사도 회장 김인철

- 1. 반장 회합 : 9일, 어머니미사 후, 강당
- 2.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뜻이 있으신 분은 본당 사무실에 신청 바람
- 3. 재의 수요일 : 7일, 단식·금육
- 4. 사순절 특별강연회 : 10일부터 매주 (토) 저녁 7시반
연사 : 인천교구 사목국장 역임-최기복 신부
성가수녀회 총장-이영영 수녀
서울 명상의 집 지도신부-김승중 신부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김진소 신부
- 5. 공소회장 연수회 : 8일 오후 2시~11일 오후 3시 (3박 4일)
- 6. 예비자 집중교리(부활반) : 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30-선택·일요일 9시
- 7. 가정방문 : 6일부터 실시
- 8. 벽돌 봉헌 : 9, 255장
- 9. 성전 신축헌금 심입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5천원-이선자, 2만원-김희관·라차복·전순복,
5만원-최효순·박경자·최순주, 3만원-변경자·김종래,
1만원-전순성·임영준·장순희, 20만원-김재덕, 10만원-1건명순

지난주 봉헌금 : 941, 945원 교무금 : 1, 369, 000원

(노송동)

신부 ⑥0969
수·사 ②7032

주임 신부 김용태
보좌 신부 나춘재
사도 회장 이홍

- 1. 대의원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각 구역장님 및 공소회장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 2. 형제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3. 본당 울뜨레아 : 오늘 저녁 8시, 사제관에서 본당내의 꾸르실리스타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람
 - 4. 재의 수요일 : 7일, 단식과 금육제를 지킵시다
재축성식-본당 저녁 7시30분, 아파트 저녁 7시30분
 - 5. 아파트 대의원 월례회 : 6일 오후 2시
아파트 지역의 구역장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 349, 240원, 아파트 : 97, 460원
교무금 : 251, 800원, 아파트 : 163, 000원

(덕진)

신부 (3) 2182
전화 수녀 (72) 1222
사부 (72) 6259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 신부 정양철
사도 회장 양상열

- 1. 사순절 특별강연회 : 7일 저녁미사 후
주제-믿음의 댓가, 강사-대건전대 교의신학박사 이병호 신부님
- 2. 오늘의 모임 : 성모회-9시 미사후, 요셉회-미사 후
- 3. 주일학교 개학식 : 오늘 오후 2시
- 4. 진복유치원 개원식 : 6일 오후 2시
- 5. 성심부녀회 월례회 : 7일 오전 10시
- 6. 까리따스 자모회 월례회 : 7일 오후 2시
- 7. 재의 수요일(사순절 시작) : 7일, 단식·금육의 날
- 8. 축! 동산교회 사도회 구성 발족 : 회장-한상갑, 부회장-김병춘·오만춘, 선교-이동원, 전례-노대권, 봉사-김남규, 교육-이순일, 재정-육문용, 감사-유한철·전창수
* 동산교회 주일미사-11일부터 오전 9시 봉헌
- 9. 축! 직장여성 「만나회」 창설 : 회장-이레지나, 총무-김메레사, 회제-이아가다

- 9. 청년 단합대회 : 11일 공식미사 후
- 10. 금주 본당 청소 : 청년연합회 10일 오후 3시
- 11. "다음주 모임(예고) : L.M 꾸리아·청년회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김성원

- 1. 3월은 성요셉 성월
 - 2. 재의 수요일 : 7일 단식과 금육, 십자가의 길 기도
 - 3. 성시간 : 9일(금요일)
 - 4. 성우회 : 다음주 공식 미사후
 - 5. 꾸리아 회합 : 다음주 일(11일)
 - 6. 부제님 방학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7. 십자가의 길 : 배 금요일 저녁미사 후와 매주일 공식 미사 후
 - 8. 금주전례 : 해설-유덕열, 독서-①천 건 ②김인식
차주전례 : 해설-황만금, 독서-①이상인 ②교회구
- 지난주 봉헌금 : 112, 555원 교무금 : 477, 91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수·유 ⑨9567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김수준

-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2. 누깁다 부녀회 : 14일 10시30분
 - 3. 주일학교 : 오늘 개학(오후 1시30분)
※ 주일학교 교사 희망하시는 분은 자원하시기 바람
 - 4. M.B.W 목상회 : 12일~17일까지
(매일 저녁 7시30분~10시30분)
M.E 교육 : 참부도가 되는 길, 11일 오전 11시~오후 5시, 참가비-각 1,500원
 - 5. 200주년 기념주일 : 11일, 특별헌금 있음
 - 6. 십자가의 길 : 사순절동안 매 금요일 오후 3시에있음
 - 7. 금주전례 : 해설-이철수, 독서-홍성조·이순자
기도-정주복·허옥순
차주전례 : 해설-이철수, 독서-이귀례·허옥순
기도-이귀례·송숙자
- 지난주 봉헌금 : 187, 350원 교무금 : 394, 800원
신학실 후원금 : 110, 000원

(전동)

신부 ⑥6208
전화 사부 ③3222
수녀 ②8347

주임 신부 김치삼
보좌 신부 박찬길
사도 회장 김병오

-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 2. 유아세례 : 학생미사 후
 - 3. 자모회·장우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 4. 성가정회 : 5일 12시
 - 5. 성마리아 꾸리아 : 다음주 오후 2시
 - 6. 주일학교 자모회 : 7일 오후 2시30분
 - 7. 대학생회 부활 : 매주일 공식미사 후, 모임 있음
뜻있는 대학생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8. 주일학교 임원 개편 : 회장-양창남, 부회장-이은주
 - 9. 재의 수요일(단식과 금육) : 7일
성지가까지 가져오세요
 - 10.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이주영,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 해설-이준영, 독서-①이영태 ②김홍기
저녁미사 : 해설-김윤주, 독서-①이훈 ②최원일
- 지난주 봉헌금 : 879, 240원 교무금 : 813, 500원

200주년 기념 주일 호소문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금년 1984년은 우리 선조들께서 이 땅에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지 200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을 치르기 위해, 교우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정성 어린 기도와 헌신적인 뒷받침을 하여 주심으로써, 계획된 여러 일들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 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주교회의는 200주년 기념 사업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1984년까지 매년 복자 성월인 9월 첫 주일을 200주년 기념 주일로 정하고, 이날에는 특히 기념 정신을 드높이고, 모든 교우들이 이 일에 다 같이 참여하도록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 성하의 방한 일정이 오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로 확정되어 기념대회, 103위 시성식, 전국 사목회의 등 중요 행사를 그 때에 실시하게 됨에 따라 200주년 기념 주일의 날짜를 앞당겨, 사순절 첫 주일인 3월 11일을 기념 주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순절은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듯이 우리도 회개함으로써 자신을 바꾸고, 이웃에게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여 영광된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스스로 찾은 진리를 생활 안에서 실천하고, 많은 어려움과 모진 박해를 능히 극복하여, 2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이어서 오늘의 빛나는 터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선조들의 순교는 바로 사순절의 의미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위대한 신앙의 선열들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부름 받은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생활 안에서 실천할 때, 이 땅에 있는 한민족 전체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믿음과 희망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맞이한 금년에는 세계 가톨릭사상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일로, 한 나라에서 103위가, 더구나 많은 평신도들이 동시에 성인 품에

오르는 영광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 성하의 방한은, 우리 생애에 이 땅에서 교황 성하를 뵈게 되는 기쁨으로, 200주년 기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0주년 기념 대회, 전국 사목회의, 시복 시성 추진 사업, 교회사 자료 정리, 성서 번역 및 통일 성가집 편찬, 맹인 무료 개안 시술, 북한 선교 사업 등 많은 일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과업이라고 봅니다. 이 크나큰 하느님의 사업을 위해 우리 모두는 더욱더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100년 뒤에도 한국 천주교회 3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마련되겠지만 그 일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 누구도 참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들이 이 20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은총이라고 하겠읍니다. 우리 생애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거룩하고 보람된 일에 우리가 동참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느님의 큰 은혜요 우리 모두의 영광이 아닐 수 없읍니다.

큰 일을 치르는 데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어려운 시대적 여건 속에서도 200주년 사업을 위해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 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계획한 모든 사업을 성공리에 능히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00주년 기념을 위한 특별 주일 헌금은 이번 주일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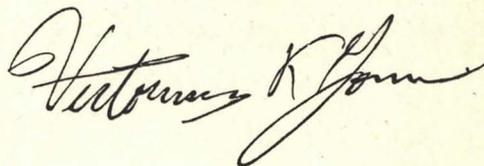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금될 200주년 기념 주일 특별 헌금은 200주년 기념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에 값지게 쓰일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의 기도와 정성된 헌금이 있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며, 하느님의 은총을 풍요롭게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1984년 3월11일 200주년 기념 주일

200주년 기념 주교위원회

위원장 윤 공 희 대주교



성모님께 바치는 봉헌기도

- 1984년 성모 영보 대축일 -

1. “천주의 성모여, 당신의 보호에 우리를 맡기나이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수세기 동안 기도해온 이 노래를 바치며, 구원의 성년에 우리는 오늘 어머니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사도들이 베드로와 더불어 하나되기를 바라신 그대로, 교회의 모든 목자들과 더불어 주교단을 이루는 특별한 유대속에서 우리는 하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치의 유대안에서 이 봉헌기도를 드리며, 우리는 현대 세계에 대한 교회의 염려와 희망 또한 함께 바치고자 하나이다.

인류 가족의 고통스러운 체험을 목격하였던 당신의 종 교황 비오 12세는, 40년전에 그리고 그 10년뒤에 티없이 깨끗하신 당신의 성심에 전 세계를 의탁하여 봉헌하였습니다. 특히 그 처지를 돌아보사 당신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민족들을 봉헌하였습니다.

우리도 또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람들과 민족들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2천년대를 마감하려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세계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 19-20)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세계에 대한 교회 사명의 각성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민족들의 어머니시여, 당신은 모든이의 고통과 희망을 다 아시오며, 현대 세계를 피롭히고 있는 빛과 어두움의 투쟁 그리고 선악사이의 모든 싸움을 당신은 어머니로서 모두 아시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당신 성심께 직접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어머니시여 주님의 종이신 당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인간세상을 받아 주소서. 모든 사람들과 민족들이 살아가는 이 지상의 앞날과 그 영원한 운명이 심히 염려되어, 이 세계를 당신께 의탁하고 봉헌하나이다. 특별히 이러한 의탁과 봉헌이 절실한 사람들과 민족들을 당신께 의탁하고 봉헌하나이다.

“천주의 성모여, 당신의 보호에 우리를 맡기나이다.”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마소서.

2. 보소서.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당신 앞에, 당신의 티없이 깨끗하신 성심앞에 우리는 서 있나이다. 전 교회와 더불어 우리는 당신 아드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느님 아버지께 자신을 바치신 그 봉헌에 우리 하나되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 17, 19). 세상과 인류를 위한 우리 구세주의 이러한 봉헌에 우리를 일치시키고자 하나이다. 구세주의 성심안에서 인류는 용서받아 치유될 수 있는 힘을 얻

습니다.

구세주의 봉헌 그 능력은 영원히 지속되어,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과 국가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인간의 마음속에 그 역사 안에서, 암흑의 영을 일으켜 놓는 모든 죄악을 그 봉헌이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과 일치하여, 인류와 세상 현대 세계를 봉헌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을 나누어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성년인 올해는 교회 전체가 누리는 특별한 은총의 해입니다.

주님의 종이신 당신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셨사오니, 당신은 모든 피조물에 앞서 축복을 받으소서. 당신 아드님의 구원하시는 봉헌에 온전히 일치하신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교회의 어머니시여!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신앙과 희망 그 사랑의 길을 밝혀주소서. 현대 세계의 모든 인류 가족을 위하여 바치는 그리스도의 봉헌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소서.

3. 오 어머니시여, 당신께 온 세계와 모든 사람들과 민족들을 맡기오며, 바로 이 세계의 봉헌을 의탁하오니, 어머니 당신의 성심안에 이를 받아주소서.

티없이 깨끗하신 성심이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위협을 이겨내도록 도와 주소서. 현대인의 가슴속에 죄악은 쉽게 뿌리를 내려, 그 엄청난 해악이 현대 세계를 짓누르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아와 전쟁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핵전쟁으로부터, 온갖 전쟁과 헤아릴 수 없는 자멸의 길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잉태의 순간부터 인간 생명을 거스르는 죄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인간 존엄성의 실추와 증오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온갖 사회 불의에서, 모든 국가적, 국제적 불의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하느님의 계명을 거리낌없이 짓밟는 죄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하느님의 진리 자체를 인간 정신에서 말살시키려는 모든 침해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선악에 대한 감각의 상실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오, 그리스도의 어머니시여, 모든 인간들의 고통으로 피로와 하고 사회의 온갖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성령의 힘으로 모든 죄악을 이겨내고 개인의 죄와 “세상의 죄” 그 죄악의 풍조를 극복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세계의 역사안에서, 자비로우신 사랑의 힘 그 무한한 구원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소서. 온갖 죄악을 막아 주소서. 모든 마음들을 새롭게 바꾸어 주소서. 티없이 깨끗하신 성심이어, 모든이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소서!